

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

조사 개요

국민인식조사

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, 성인 1,200명을 대상으로

2019년 3월 20일부터 22일까지(3일간) 모바일 설문조사 실시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 $\pm 2.8\%p$

청소년인식조사

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, 만 15세 이상 17세 이하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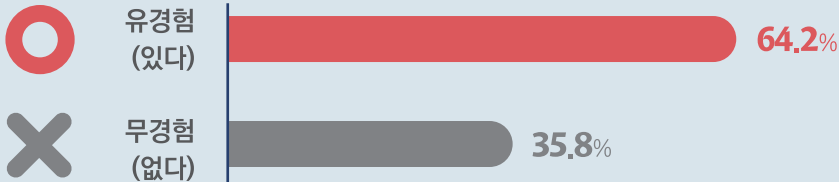
2019년 5월 9일부터 14일까지(6일간) 모바일 설문조사 실시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 $\pm 4.4\%p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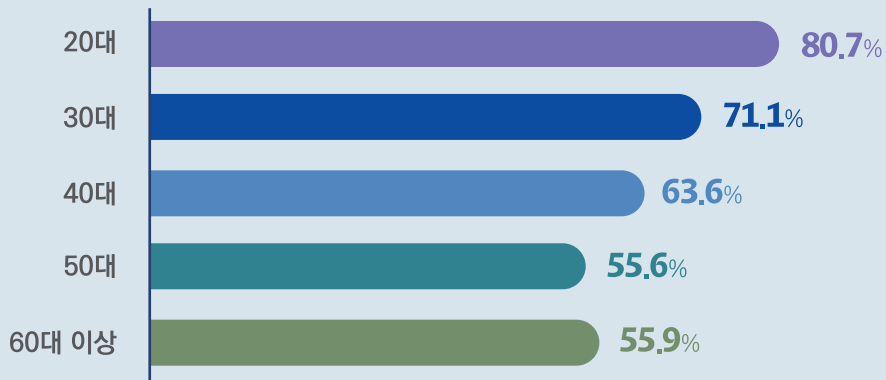
혐오표현 경험

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을 접한 사람은 10명 중 6명 이상인 64.2% 였고, 연령이 낮을수록 혐오표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.

● 혐오표현 경험 유무



● 연령별 혐오표현 경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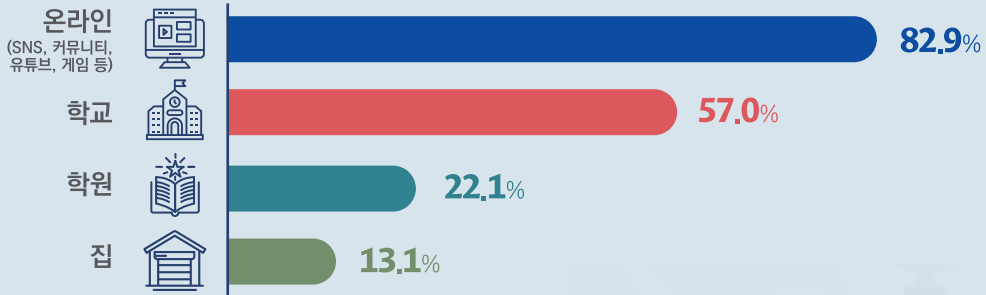


청소년의 혐오표현 경험 - 장소, 주체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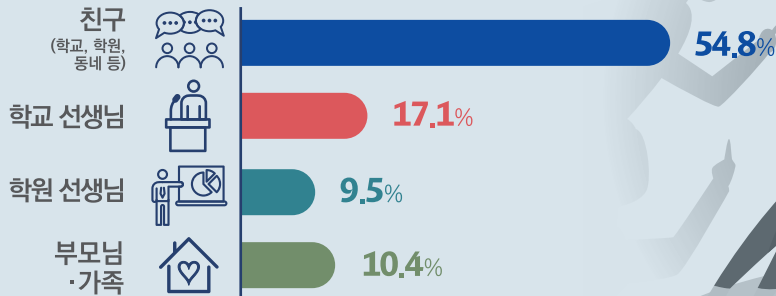
혐오표현을 접한 청소년의 82.9%가 SNS나 커뮤니티, 유튜브, 게임 등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학교(57.0%)에서, 친구(54.8%)로부터 혐오표현을 경험하고, 혐오표현 사용자가 학교 선생님인 경우도 17.1%였습니다.

장소별 혐오표현 경험 빈도



주체별 혐오표현 경험 빈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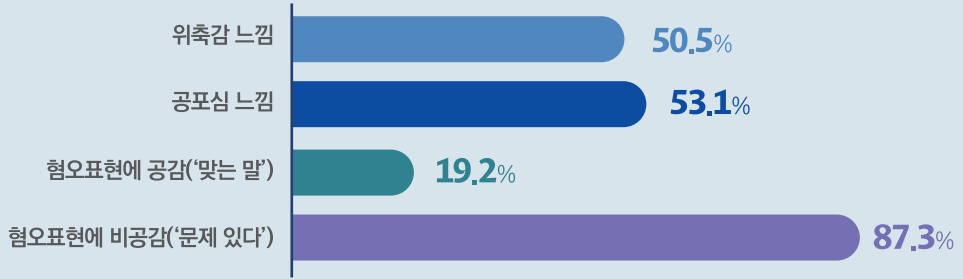


혐오표현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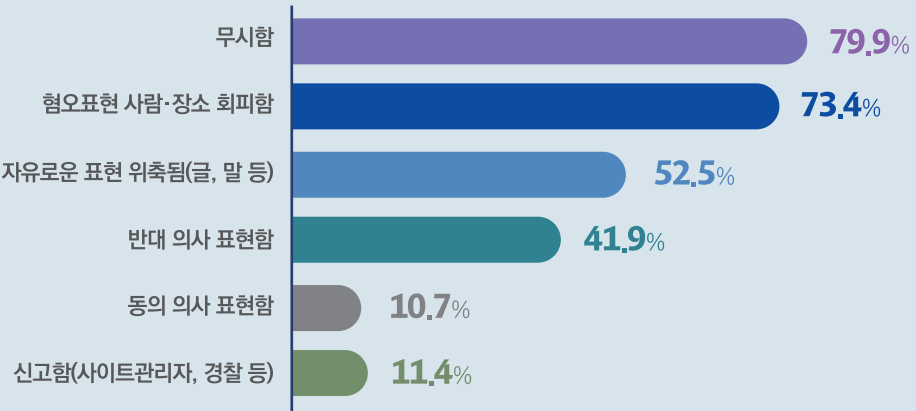
혐오표현을 접한 후 87.3%는 ‘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’고 답했습니다. 공포심(53.1%)이나 위축감(50.5%)을 느낀 사람도 절반 이상이었습니다. 그러나, 직접적인 반대의사 표현(41.9%)보다는 그냥 무시하거나(79.9%), 혐오표현 발생장소나 사용자를 피하는(73.4%) 등 주로 소극적 방식으로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● 혐오표현 영향

심리 · 인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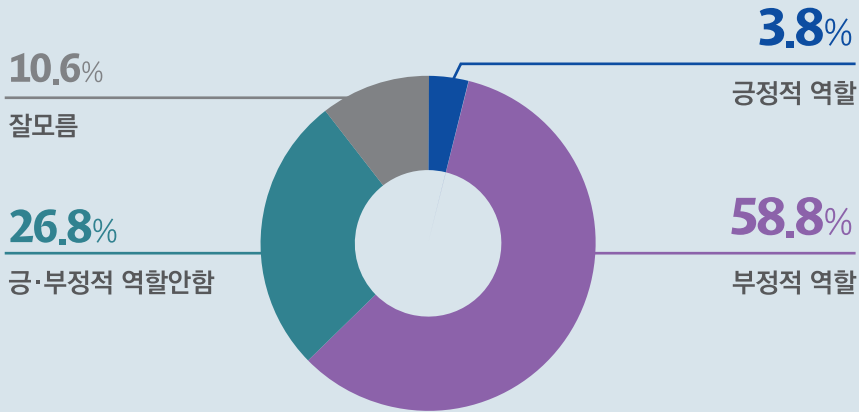
행동 · 영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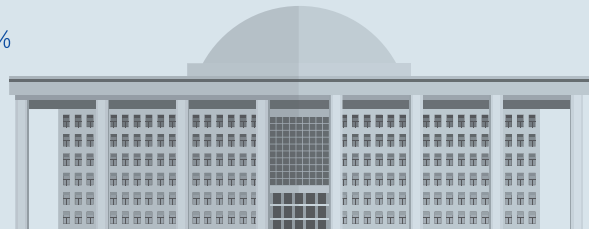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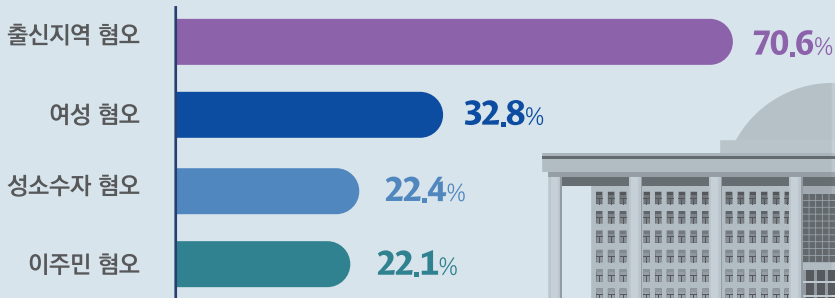
혐오표현과 정치인

국민 10명 중 6명(58.8%)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혐오표현을 조장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정치인이 조장하는 혐오 유형으로는 특정지역 출신자에 대한 혐오(70.6%)가 가장 높고, 여성(32.8%), 성소수자(22.4%), 이주민(22.1%)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.

● 혐오표현에 대한 정치인의 역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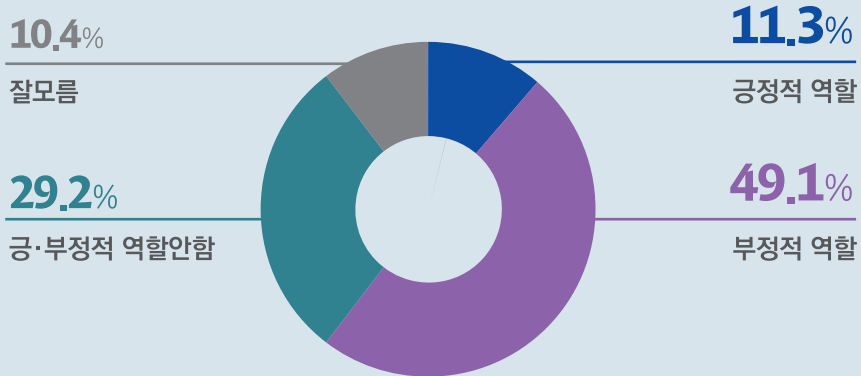
● '정치인 조장' 심각한 혐오 유형 (1+2순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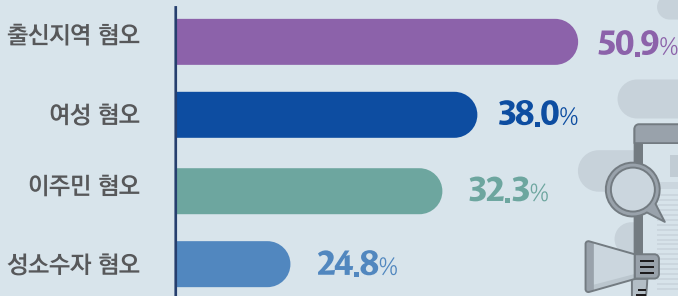
혐오표현과 언론

언론 역시 혐오표현을 조장하는 부정적 역할(49.1%)을 한다는 인식이 높고, 언론의 혐오표현 대상으로는 특정지역출신자(50.9%), 여성(38.0%), 이주민(32.3%), 성소수자(24.8%)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.

● 혐오표현에 대한 언론 역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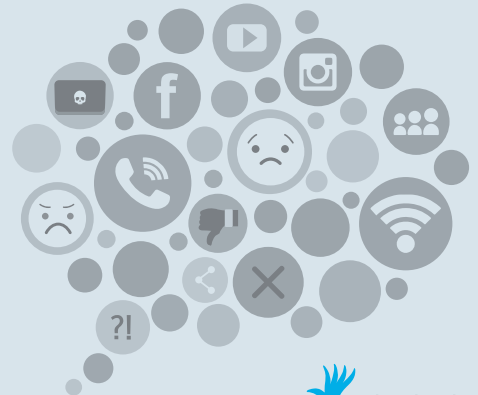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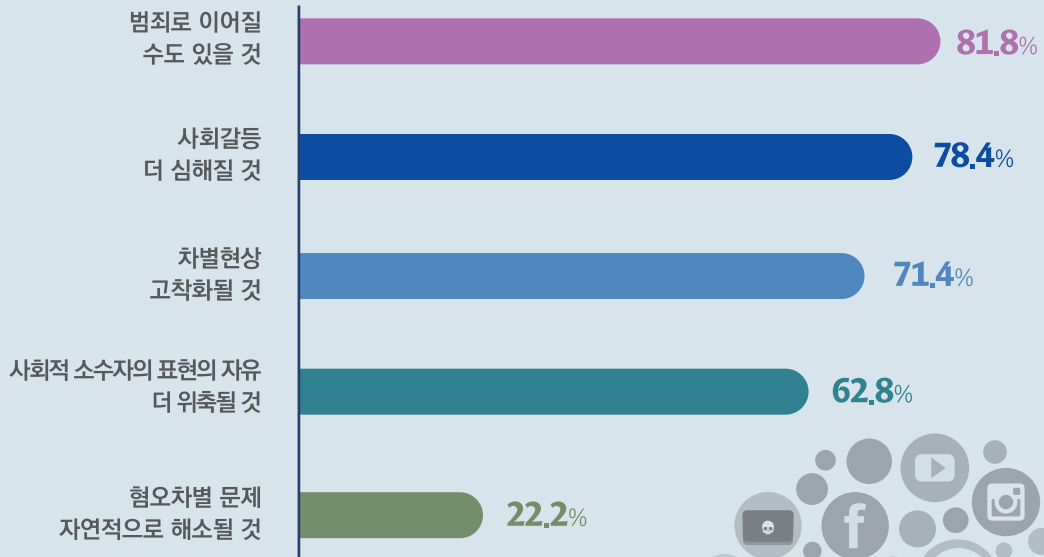
● '언론 조장' 심각한 혐오 유형 (1+2순위)



혐오표현 향후 전망

응답자들은 향후 혐오표현이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(81.8%), 사회갈등이 더 심해질 것(78.4%), 차별현상이 고착화될 것(71.4%),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가 더 위축될 것(62.8%)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. 반면,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동의는 22.2%에 불과했습니다.

● 혐오표현 관련 전망 동의 정도



혐오표현 대응정책에 대한 태도

혐오표현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정책들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● 혐오표현 대응정책에 대한 태도

